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청년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신 현명한 령도

신 철 호

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대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청원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3권 416페이지)

김일성종합대학에 령도의 자욱을 옮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청년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대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신것이다.

혁명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무엇이며 우리가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통의 본질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그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혁명전통의 본질과 그 순결성을 고수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통이란 지난 력사적시기에 형성된것이 하나의 계승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크게 민족적전통과 혁명전통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전통이라는 말을 원래의 의미에 맞게 정확히 써야 할뿐아니라 혁명전통과 민족적전통을 엄격히 갈라서 써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성격을 명백히 할수 없으며 그 순결성을 흐리게 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9(1960)년 12월 학생들에게 지난 시기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인민군대가 길주, 명천농조운동이나 독립군과 의열단의 전통을 계승하여야 한다고 떠벌인데 대하여 까밝히시면서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은 수령이 개척하고 령도하는 혁명투쟁과정에서만 형성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전통으로 될수 없다고, 혁명전통에 수령의 혁명활동과 인연이 없는 오가잡탕이 조금이라도 끼여든다면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할수 없고 그 혁명적성격이 변질되게 되며 나아가서는 혁명전통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아안으면서 대학생들은 우리 당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밖에는 그 어떤 전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청년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신것이다.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여 혁명의 계승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그들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대학생들속에서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주체49(1960)년 10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에 꾸려진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록편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지적해주시면서 도록을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게 편성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도록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여주면서도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을 잘 보여줄수 있게 편성하며 수령님의 령도선을 잘 살리면서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당과 인민들의 투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성과가 뚜렷이 안겨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와 함께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하여 전시할데 대한 문제와 연구실을 정중하게 꾸리고 잘 관리하며 교직원,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회상기연구토론회도 하고 로작연구토론회도 광범히 진행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자주 연구실을 찾으시여 도록편성과 혁명전통학습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친히 귀중한 사진자료들도 보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밑에 대학생들은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학습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어나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회상기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당시 적지 않은 대학생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를 학습하면서 그 내용을 학습장에 발취하는것으로 그쳤으며 연구발표모임도 실생활과 결부시켜 진행하지 못하고 그저 자료를 라벌하는데 그치고있었다.

주체49(1960)년 9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 학생들은 회상기 《공청원 리순희동무》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여러명의 학생들이 학습장을 가지고나와 그 내용을 전달하다싶이 하였고 뒤이어 토론에 참가한 학생들 역시 회상기의 내용과 자료들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실생활과 결부시

켜 토론하지 못하였다.

회상기연구발표모임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연구토론회는 회상기에 담겨져있는 기본사상과 내용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통하여 귀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을 받아안은 대학생들은 그후부터 회상기학습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없애고 회상기를 한 제목 학습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사상수양의 과정으로 되도록 깊이있게 학습하여 자신들을 더욱더 혁명적으로 단련해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답사를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일찌기 평양제1중학교(남산고급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생들에게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50(1961)년 10월을 비롯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대학생들에게 만경대와 전승혁명사적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내용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려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인민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거점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주체51(1962)년 8월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과 하신 담화에서 혁명전적지답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이번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였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산이며 수령님의 업적을 세기를 두고 길이 전할 력사의 산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백두산의 무게와 그 숭엄함이 그대로 담겨진 귀중한 교시였고 성스러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높이에 끌어올린 력사적인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백두산이 영원하듯이 백두산에 시원을 두고 자라난 우리 혁명도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교시하시면서 우리 시대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지난날에는 백두산이 우리 인민의 희망의 등대였다면 오늘은 혁명의 억센 뿌리를 체득하는 훌륭한 배움터이라고, 학생들의 이번 답사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 뜻깊은 답사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대학생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청년대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항일혁명투

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선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충실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생들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김책, 마동희, 오중흠 등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신뢰심을 심어주시였다.

주체50(1961)년 3월 학부민청에서 조직한 대성산렬사묘(당시)참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하시였던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추억깊은 이야기를 해주시고나서 련이어 김책동지의 충정의 한생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후에도 장길부녀사의 회상담 《조국의 아들 마동희》에 대한 록음취취모임과 실효모임,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혁명선렬들에게 바치는 맹세》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이 대학생들속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체득시키는 과정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대학생들은 혁명선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적신념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을 본받아 위대한 수령님께 충정다할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대학생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과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주체50(1961)년 7월 회상기감상발표모임에 참가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대학생들에게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숭고한 애국주의정신을 지니는것은 오늘도 의연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멀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자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애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그 정신대로 살며 생활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주체51(1962)년 9월 어은동에서의 군사야영훈련의 나날에는 학생들에게 농민들의 공구를 빌려다 손상시키거나 무르익어가는 곡식밭을 가로질러다니는것을 있을수 있는 범상한 일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대학생들은 언제나 군민관계에서 경중을 가려서는 안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기 청년대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킨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